

Global ASEZ Summit 2019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Global ASEZ Summit 2019

OUTCOME REPORT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CONTENTS

02

ASEZ 및 행사 소개

07

축사 및 격려 메시지

14

연사 강연

23

YOUTH-LED 대학생 정상회의

37

최종 결의안

39

부록



ASEZ 및 행사 소개

· About ASEZ

· Global ASEZ Summit 2019

About ASEZ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Group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 봉사단 AS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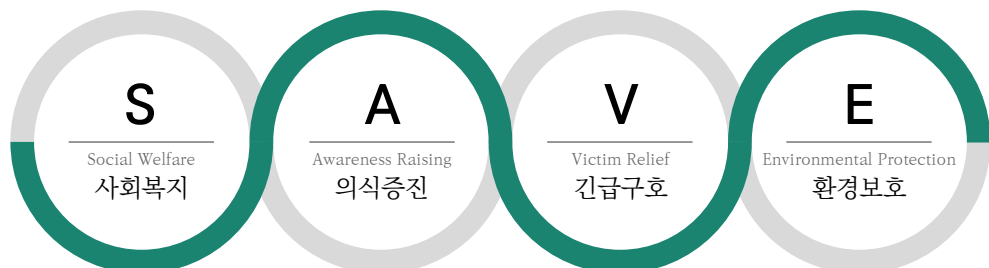
‘Save the Earth from A to Z(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를 구하자)’라는 뜻의 ASEZ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소속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제봉사단체입니다. 성경에 기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계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인류 복지’를 실현하고자 범세계적인 자원봉사를 전개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CHANGEMAKER

ASEZ는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로서 77억 인류의 행복한 삶,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행복과 평화로 물들일 때까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주요 활동



캠페인

Campaign 1 GREENSHIP

인류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환경 보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
| 환경 캠페인·세미나·포럼
| 캠퍼스 및 지역사회 정화활동, 나무 심기

Campaign 2 REDUCE CRIME TOGETHER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 예방 캠페인
|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캠페인·세미나·포럼
| Crime Free Zone 구축 활동

Campaign 3 SDGs 이행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조건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캠페인
| SDGs 이행을 위한 캠페인·세미나·포럼
| 재난 피해 복구 및 구호, 소외 이웃 지원, 복지 시설 위문

Global ASEZ Summit 2019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1. 배경 Background

범죄·폭력·테러·전쟁이 만들어 낸 죽음, 한 해 56만 건(1분에 1명씩 사망)-Small Arms Survey, 2017.
폭력 경험 아동·청소년(2~17세) 전 세계 10억 명-세계보건기구, 2017.
전 세계 여성 3분의 1이 폭력 피해 겪음-세계보건기구, 2013.

범죄와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도약(Quantum Leap)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한 삶,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뀐다’, ‘달라진다’는 것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행동 중심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과 발전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범죄는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사람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해결 역시 인간 개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ASEZ는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포함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이 또다시 변화의 주체가 되어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활기찬 지성과 행동력을 갖춘 체인지메이커, 전 세계 대학생이 대한민국으로 모였습니다. 42개국 2,50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지역적이고도 세계적이며, 실질적이고 결과 도출적인 범죄 예방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하고 결의했습니다.

ASEZ 대학생들은 이제,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한 도약을 다 함께 준비합니다.

2. 목적 Purpose

국가별 범죄 실태 및 사회적 범죄 이슈 공유

범죄율 감소를 위한 공통 / 대륙 및 국가별 활동 정립 및 결의안 채택

대학, 정부, 국제기구, NGO와의 네트워크 구축

전 세계 범죄 예방 활동 홍보 및 이슈화

3. 날짜 및 장소

Date and Venue

2019년 7월 15일
새예루살렘 판교성전

4.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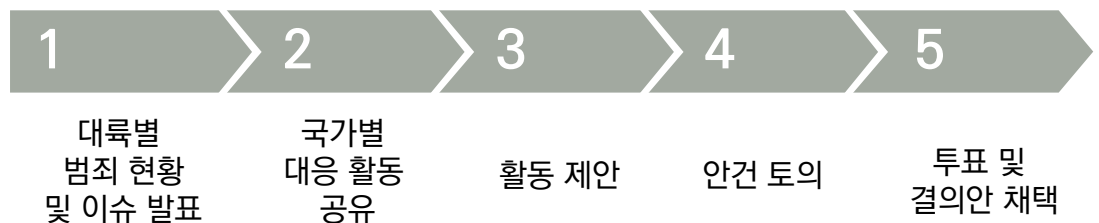
Participants

42개국 대학생 2,500여 명
국제기구·정부 기관·대학·지자체·NGO 관계자 500여 명



5. 진행 방법

Process



프로그램

PROGRAM

구분		내용
개회식	식전 공연	· ASEZ 퍼포먼스
	Intro 영상	· GLOBAL ASEZ SUMMIT Intro 영상 상영
	영상 축전	· 영상 축전
Session 1 Motivation	전문가 강연	· 격려 메시지 1 필리핀 내무지방자치부 장관
		· 격려 메시지 2 브라질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 총장
		· 연사 강연 1 아르헨티나 라리오하주 안보부 장관
		· 연사 강연 2 우크라이나 드라고마노프교육대학교 총장
		· 연사 강연 3 페루 사법부 재무행정관리실장
Session 2 Youth-led	대륙별 Summit	· ASEZ 소개
		· 대륙별 범죄 현황 발표 및 범죄 예방 활동 제안
		– 아시아
		– 북미
		– 남미
		– 아프리카
		– 유럽
		– 오세아니아
		· 결의안 도출
자문 위원 안내		· ASEZ 자문위원 위촉 현황 공유
결의안 채택		· Chagemakers’ Resolution 결의안 채택 및 선언 – 6개 대륙 대표 서명 및 결의안 낭독
기념 촬영		· 기념 촬영
폐회		· 폐회



축사 및 격려 메시지

CONGRATULATORY MESSAGE



미국 유타 UN 협회장

캐서린 세인트 존

ASEZ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헌혈 운동, 특히 최근에 범죄 예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인 활동을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국 적십자 판매 부문 회계 이사

셰리 반 비버

안녕하세요! ASEZ 청년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활동하며 대중과 청년들을 교육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교육을 해주고, 발전을 위한 일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큰 감사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회 워렌다이트 대표 국회의원

라이언 스미스

특히 범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하는 ASEZ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곳과 전 세계에서 칭찬할 만한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리핀 국립경찰 종교담당 경찰대령 겸 신부

노엘 폰사란

‘범죄’는 개인이나 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참여로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범죄 없는 사회의 삶이 진정 건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평화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는 곧 현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참여자로 지금 활동해주시고, 평화를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네사우알코요틀 시장

후안 우고 데라로사 가르시아

이 축전을 통해 ASEZ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평안을 이루기 위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상원의원

미겔 로메로

푸에르토리코 지역의 범죄 예방을 돕고 본을 보여준 ASEZ를 칭찬합니다. ASEZ로부터 미래가 시작됩니다.



호주 멜버른 매닝햄 시의원

도트 헤인스

Towards Zero Crime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ASEZ 단체와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청년들과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 대학생 들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모두를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 前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하나님의교회 대학생봉사단 ASEZ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체(ASEZ)와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 일을 하는 모든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행운을 빕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학생들이 모이는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ASEZ에 축하를 보내며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 시의원

존 령

지방자치단체 프탈링자야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는 범죄와 싸우는 ASEZ의 활동과 범죄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ASEZ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싱가포르대학교 총장 겸 이사장

마닉 가이크와드

청년들에게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시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든 환영합니다. 싱가포르대학교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네사우알코요틀기술대학교 총장

이벳 토페테 가르시아

전 세계인이 추구하는 환경보호, 범죄 예방,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ASEZ 청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치하하며 ASEZ에 멕시코에서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멕시코에서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교 부총장

지 간툴가

먼저 ASEZ 국제 대학생들이 범죄를 예방하자는 슬로건 아래 국제 모임을 개최하게 된 것에 농업대학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 범죄 예방과 법적 보호를 받는 안정된 환경에서 사는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무척 기쁩니다.



말레이시아 브릭필즈아시아대학교 이사장

라자 싱함

안녕하세요. 2019 ASEZ 정상회담과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숭고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UN SDGs와 맥락을 같이하는 금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세계 여러 대학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일에 다 참여하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시민참여연대 대표

파벨 지베르트

ASEZ 청년들이 멕시코 아스카포트살코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활동을 펼친다는 소식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대학생들이 환경보호와 범죄 예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MOTIVATIONAL MESSAGE

필리핀 내무지방자치부 장관

에두아르도 마나안 아뇨



아세즈 정상회의, 평화로운 사회 만들자는 시민 목소리 증폭시켜
범죄, 폭력, 불법에 대응하는 캠페인 정부에서도 계속할 것

MOTIVATIONAL MESSAGE 1

대학생 자원봉사단 ASEZ가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내무 지방자치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따뜻한 인사와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서, 전 세계 미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한 변화를 위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역적이고 세계적이며 실행적이고 보조적인 범죄 예방 운동에 맞게 설계된 지도 방안 마련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범죄 제로’를 향한 우리 지역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참여 없이도 이 프로젝트는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우리 주민들의 울림 있는 목소리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195,000명의 강력한 필리핀 경찰 병력을 갖춘 우리 내무지방자치부는 사전 예방 조치에 착수하고 꾸준한 캠페인들을 벌여 평화와 질서 유지, 범죄율 및 불법 마약 반대 노력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귀하의 비전에 있어 열렬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범죄·폭력 및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우리의 승산 있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 혁신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불법 마약류 및 기타 여러 범죄들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대응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 기세를 이어가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성과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귀 봉사단의 더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 총장
실비우 마리우 푸가



전 세계적 문제인 폭력에 맞서는 것은 양질의 교육

MOTIVATIONAL MESSAGE 2

브라질에서 가장 유서 깊은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의 총장으로서, 2019년 Global ASEZ Summit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인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한 도약은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은 인류를 위해 아주 중요하고 관련이 깊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참석하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미래의 리더인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범죄를 줄이고, 더욱 공정하며 잘 조직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행사에 전적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교육은 기업가 정신을 포함합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적인 활동입니다. 이것이 대학의 역할입니다.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는 아마존 밀림 중심에 있으며 110년 동안 아마존뿐 아니라 세계를 위한 리더를 양성해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며 자연을 존중합니다. 거대한 밀림 속에 세워진 유일한 대학으로서, 우리는 자연을 존중하고, 인류를 존중하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대학생들이 결단력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란 정확히는 폭력, 범죄, 차별, 또는 불관용의 행위에 대해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관용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는 기업가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나우스시 생산 부문과 대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점점 많아져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나우스에는 산업 지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브라질 청년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는 범죄와 맞서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일까요?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책임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야말로 대학의 모토이기 때문이지요. 아마조나스연방대학교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과학은 진리다.’

과학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실천과 과학적 실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 무대에 나아가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무대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협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폭력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와 맞설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문제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정의롭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대학의 교수진 및 기술자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연사 강연

-
- 아르헨티나 라이오하주 안보부 장관
 - 우크라이나 드라고마노프교육대학교 총장
 - 페루 사법부 재무행정관리실장

EXPERT LECTURES 1



아르헨티나
라리오하주 안보부 장관
호세 마누엘 데라푸엔테

아세즈 시행 활동들은 범죄 예방, 안전보장에 매우 효과적
대학생들의 경험과 전공 활용하여 더 나은 세상 만드는 데 기여

EXPERT LECTURES 1

친애하는 ASEZ 청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라리오하주 안보부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매우 의미 있는 국제 간담회에 참여하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중 하나인 '안전보장'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쟁, 자연환경 오염, 어린이 인권, 노인 인권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때 안보는 넓은 의미에서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 교육은 사회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활동은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상호 관계를 바르게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시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더 확고하게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길을 걸을 때나 외출할 때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시행 활동들은 안전보장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공공장소에서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범죄율을 높이는 건물 외벽의 지지분한 낙서 제거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모든 지역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례로 스포츠 활동 및 사회적 상호 관계 형성을 위한 공원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보를 위해 군사 무장보다 더 뜻깊은 평화의 씨앗을 싹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 억압 정책보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ASEZ 대학생 회원들이 전하는 참여 메시지는 안보를 위한 더 나은 지표가 됩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의 모든 대학생 청년들 또한 이 안보 문제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과 전공을 활용하여 문화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 문제의 70%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은 정부와 안보 관련 부처 및 유엔군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시스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동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및 사회 관계의 원활한 형성 과제가 먼저는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활동이 너무나도 이롭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노고는 필시 전 세계 각국 대학생들의 하나 된 뜻이 되어 이들 또한 안보 문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수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 세대들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라리오하는 아르헨티나에 속한 작은 주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정부에서는 이곳을 포함하여 각 주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주 안보처를 두고 안전한 주를 만들기 위해 이 순간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가 국내 24개 주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청사 주지사 외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 분야에 두 배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모바일 장치를 경찰 장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해결 방안의 30%에 불과하며 70%는 시민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저희 주는 시민들이 온건하고 선량하고 정직하며 맡은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는 평온한 곳이지만 때때로 안타깝게도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이 증가하고 평온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있는 지역 조명 협력 활동은 매우 요긴한 해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및 거주 지역을 깨끗이 하는 정화 운동은 사람들의 범죄 욕구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ASEZ 대학생 회원 모두는 열심히 헌신하는 활동적인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의 애정 어린 깊은 감사 인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위러브유!

EXPERT LECTURES 2

우크라이나
드라고마노프교육대학교 총장
빅토르 페트로비치 안드루시첸코



미래를 향하는 돌파구, 청년 청년들은 언제나 그들 손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현실 찾아내

EXPERT LECTURES 2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는 곳도 전공도 다 다르지만, 우리 대학 교수들은 모두 개인으로서, 한 국가의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문화 간 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고,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도 거의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대표하여 세계의 리더 여러분들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제 의견은 점점 더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문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설령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학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가장 진보된 사고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견해를 대표하는 과학자들과 더불어 제 동료 교수들이 일하고 있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은 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언제나 미래로 향하는 돌파구입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은 기성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무지에서 앎으로의 전환이며, 청년들이 그들 손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현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노력을 한데 모으고 학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한 수단과, 소요될 막대한 양의 기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수들이 다른 대학에서 일하는 것과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거나, 여러 다른 대륙에서 이른바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문화와 지식의 경험, 교육적 경험, 과학적 경험의 상호 교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회의도 포함됩니다. 이런 회의는 가능한 한 자주 개최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대학교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이 우크라이나 교육대학의 선두 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은 연구하고, 현재의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근본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도전한다면, 이것이 세계화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보 혁명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사로잡고 있는 실용주의 또는 대중주의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이브리드 전쟁'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보, 언론 등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신개념 전쟁.

우크라이나에는 몇 가지 내부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전쟁은 매우 큰 이슈입니다. 둘째로,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패입니다. 셋째,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회에 만연한 빈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할 때, 대학은 사회의 당면 과제 극복을 위한 모든 지식, 기술, 교육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그렇게 함으로써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진원지에 무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생이 세계와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는 ASEZ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범죄와의 전쟁 속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유럽의 다른 국가, 라틴 아메리카, 북미, 캐나다로 많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른 수치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럽 전역에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학은 놀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요. 왜일까요? 대학은 지식, 역량 및 가치를 형성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을 길러내는 장소입니다. 시민이자, 독립된 인격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을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학의 기능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은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각자가 속한 사회의 특징과 법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고하기 위한 계몽이 될 것입니다. 교도소를 짓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 열 명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범죄는 계몽과 교육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 대학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배제할 수 없는 주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대학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방법론과 로드맵을 만들어내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눌 회담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눈 회담의 정보가 우리 대학까지 무사히 도달하길 바랍니다.

저는 또한 다른 나라 대학의 총장님들을 우리 대학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60개국의 대학과 약 160건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과 협력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과의 협력 양해 각서(MOU)에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창의적인 결실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EXPERT LECTURES 3

페루
사법부 재무행정관리실장
다비드 마르코스 피스코야



청년은 사회의 균형점 선한 행실로 아이들의 본보기 될 때 범죄 예방, 세상 바꿀 수 있어

EXPERT LECTURES 3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42개국 대학생 리더들이 모인 2019 전 세계 ASEZ 정상회의의 국제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ASEZ 측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리더로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다비드 마르코스 피스코야이며, 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법부 공공기관에서 변호사로 재임 중입니다.

직업상 라틴 아메리카 지역 범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소송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을 통해 각국의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라틴 아메리카에 형사 소송 개혁안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전문 분야인 법조계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대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날이 갈수록 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는 높이고 처벌 가능 연령은 점점 낮추고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입법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 국가에서는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에 대한 형법입니다. 왜 청소년이 각국 법률 제정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범죄 발생 시 그 처벌 가능 대상을 성인들에 국한하고 청년층이나 청소년들은 제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이라 함은, 법률이 정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법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일정 연령 중에서도 18~21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21세 청소년들에 관해 법률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법률상 이들은 제한된 법적 책임을 지닌 자로 분류됩니다. 즉,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낮게 적용되는 미성년자인 것입니다. 18~21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동일한 처벌을 할 경우 삶의 리듬을 깨트려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벌의 목적은 처벌 대상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입니다. 만약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다 이후에는 반사회적인 존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법자들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이 모색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다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사회화를 돕기보다 사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을 지닌 자로 분류하여 해당 연령대의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삶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자들은 더 이상 재사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형사 소송 개혁안을 시행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모든 국가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법자들이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이익 또는 사회의 이익을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범죄한 청소년들을 수감하려고만 합니다.

그럼 입법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회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청소년들을 수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봅시다. 왜 입법자들은 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기보다 해악을 끼친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암살, 강탈 및 여러 범죄 행위에, 제한된 책임만을 지닌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문용어로 이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입니다. 면책특권이 범죄 조직들에게는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범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날이 갈수록 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는 높이고 처벌 가능 연령은 점점 낮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에서 적법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를 정하는 균형점, 반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회 균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회 균형점이 되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유아나 성인들이 아닌 청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존재이며, 어른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따라 하는 것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청년들을 더 많이 따라 합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한 번쯤은 보고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명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라, 그리하면 징계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본을 보이는 교육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교육을 앞서 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따라 하게끔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은 어른과 노인을 따라 하지 않고 청년들의 행동을 따라 합니다. 그렇기에 청년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증기의 균형점이 무거운 물건의 무게를 지탱해주어야 하듯이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세상을 선도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입법자들은 감옥을 더 늘릴 것을 주장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형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개개인이 균형점이 되어 타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볼 때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을까요? 그들의 열정, 끈기, 활력! 이것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청년들만이 가진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도 과거도 아닌 현재 대학생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근간은 현재, 바로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기에 미래에 근간이 구축될 수 없으며, 과거 또한 기억을 위한 저장 매체에서 찾을 수 있기에 역시 과거에도 근간이 구축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결심만 한다면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 올바른 본보기, 각 전공 분야에서의 꾸준한 학업 연구 등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라는 기증기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아이들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SEZ 대학생 청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알렉산더 대왕. 이들은 청년 시절에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TH-LED

대학생 정상회의

-
- | | |
|-------|---------|
| · 아시아 | · 아프리카 |
| · 북미 | · 유럽 |
| · 남미 | · 오세아니아 |



NORTH AMERICA

1. Current Issue

- 사이버 범죄

2. Suggestion

-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
- Zero Crime Zone 구축

SOUTH AMERICA

1. Current Issue

- 범죄의 우발성
- 공공장소 범죄 증가

2. Suggestion

- 아동 교육의 세계화
(아동 인성 함양·정서 교류 프로그램 구축)

EUROPE

1. Current Issue

- 강력범죄의 비약적 증가

2. Suggestion

- 처음으로 돌아가다!
'천부인권'에 대한 환기



AFRICA

1. Current Issue

- 청년 의식 부재

2. Suggestion

- 교육 커리큘럼 및 제도 도입을 통한 능동적 참여 활성화

ASIA

1. Current Issue

- 셋업 범죄
- 기초질서 위반

2. Suggestion

- 정부와 사회 시스템 간 효율적 소통 체계 구축

OCEANIA

1. Current Issue

- 차별 범죄

2. Suggestion

- ‘우리’의 인권
- 다르니까 사람이다

YOUTH-LED

대륙별 Summit

ASIA

1. Current Issue

셋업 범죄(부패한 공권력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외국인을 용의자로 몰아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
기초질서 위반

2. Suggestion

정부와 사회 시스템 간 효율적 소통 체계 구축→개인의 행동 변화를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

각 정부는 정의와 사회 발전, 그리고 시민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틀이자 시스템 그 자체다. 주요 정책결정자, 그리고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해당사자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행동,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는 교육, 기업, 시민 그룹 등 모든 사회 체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부를 수 있다.

공익을 위한 교육과 의식 증진,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위한 소셜 마케팅 기술 도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개인의 행동 변화는 결국 사회 시스템과 맞물린다. 따라서 아시아 대륙은 지역 실태와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회의 각 분야와 경계를 초월하는 협력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기획과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추가 발제: 남미 대륙 브라질 지부

범죄라는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범죄는 국경, 계층, 지역과 장소의 제한이 없다. 전 세계 모든 곳의 개인과 단체, 정부와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브라질 지부는 각기 다른 사회적 기능을 가진 각 조직을 잇고 더욱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아마조나스 주의회 입법부, 마나우스 노부아이랑 시청, 브라질 UNDP, 우팜대학 등 정부, 국제기구, 교육기관과 활발한 소통을 전개하여 지역적이고 실질적인 활동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학생 및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브라질 지부는 분야를 초월한 국제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다.

NORTH AMERICA

1. Current Issue 사이버 범죄

2. Suggestion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 ZERO CRIME ZONE 구축

‘사이버 범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활동 유형 중 하나다. 미연방 당국은 2011년부터 매년 FBI Internet Crime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초에 발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FBI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미 대륙 50개 주의 사이버 범죄 건수만 약 38만 건이다. 또한, 미연방 당국이 운영하는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발표에 따르면, 공식 집계된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2016년 한 해에만 12억 2천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을 이유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폭력이 되어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며,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본인의 의지로 쉽게 지울 수도 없다. 이렇듯 ‘익명성’을 무기로 공공연하게 대담한 폭력을 휘둘러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발생시키므로 인간의 행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사이버 범죄다. 사이버 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대륙 내의 사이버 범죄 사실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미 대륙 ASEZ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왔다.

북미 대륙은 ‘온라인 루머’ 피해 예방을 주제로 지난 1년간 대학과 거리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실시, 인식 증진과 개선을 위해 힘썼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세계 관용의 날’에 ‘개인 정보 보호’를 주제로 유엔에서 직접 발표하며,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까지 알리고자 했다. 대학 캠퍼스 폴리스 전담 부서, 시청 사이버 범죄 감소 담당 부서와 MOU를 체결하고, 각 정부 기관 관료들과 협약을 맺어 범죄 예방 활동 전개를 촉구했다.

낙서 지우기, 우범지역 벽화 그리기, 캠퍼스 및 주변 환경 정화 등 셉테드(CPTED) 활동을 통해 공간 가꾸기의 중요성을 가시화하며, 인터넷 공간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가꾸어나가야 할 공간의 일부임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현실 속의 ‘나’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나’를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며, 개인에게 현실에서 학습한 도덕성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준다. 그렇기에 인터넷 범죄는 인간 개개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북미 대륙은 ASEZ 범죄 예방 활동에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Suggestion 1: 영상 교육을 통한 온라인 범죄 예방]

사이버 범죄의 유형,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를 알릴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범죄 예방’ 교육은 주로 오프라인이나 문서 자료의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그 해결책도 온라인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콘텐츠 패러다임은 이미지,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에서 영상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다. 글은 독자에게 글로 쓰인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영상은 메시지를 함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고 시간도 절약된다. 또한, 이를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면 전 세계,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더욱 신속히 교육받을 수 있다. 즉, 이제는 특정 국가나 연령층이 아닌, 모두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Suggestion 2: ZERO CRIME WEB ZONE]

우리는 흔히 집, 학교, 회사, 공원과 같은 장소만을 ‘공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하지만 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도 우리가 가꾸고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할 공간의 일부분이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실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 의해 조성되었고, 인간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온라인상의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계정’은 우리의 ‘집’과 같은 공간이다. 즉, 셉테드(CPTED)와 같이 범죄 없는 공간을 디자인하자는 ASEZ의 운동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온라인상의 개인 공간 즉, ‘소셜미디어·블로그’ 등 웹(WEB)을 ZERO CRIME ZONE으로 만드는 활동을 제안한다.

》》 추가 발제: 아시아 대륙 싱가포르 지부

싱가포르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심각하기에, 이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가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면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청이 발표한 2018 연간 사기 범죄율을 보면, 상위 10개 중 3개 항목이 사이버 범죄다. 그중 전자상거래(E-Commerce)는 사기 범죄 분야 1위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발표한 미국의 예처럼 그 피해도 크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ZERO CRIME WEB ZONE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ASEZ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이 내용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게 하는 SNS 캠페인으로까지 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SOUTH AMERICA

1. Current Issue

범죄의 우발성
공공장소 범죄 증가

2. Suggestion

아동 교육의 세계화
-아동 인성 함양·정서 교류 프로그램의 구축 및 세계화

남미 대륙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범죄는 ‘살인’과 ‘강도’다. 브라질 싱크탱크 이가라페 연구소의 2017년 ‘국가별 살인율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60명, 베네수엘라는 54명, 온두라스는 43명, 멕시코는 20명으로 전 세계 살인율 최상위 5위 국가 중 4개 국가가 남미 대륙에 속해 있다.

그중에서도 남미 대륙 전역이 공통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안은 ‘강도 살인’이다. 특히 칠레는 남미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폭력 범죄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국민 모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부속기관인 범죄예방 사무국에 따르면, 2016년 신고 접수된 절도에 해당하는 폭력 범죄만 총 62,346건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절도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대부분 택시, 버스와 같은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미 범죄의 대부분이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직업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늦은 밤, 이른 아침과 같은 특정 시간대 혹은 골목길 같은 특정 장소에 따라 강도로 돌변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이 공통적인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강도 행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륙 내의 이와 같은 강도 및 강도 살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발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대학에서 강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참여를 촉구하는 RCT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RCT 홍보 부스를 릴레이로 운영했다. 또한, 공공장소 범행 감소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어둡고 관리되지 않은 우범지역을 점검 및 정화했고, 우범지역 골목 등에서 벽의 낙서 지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나아가 각 국가의 행정부, 경찰서, 법원 등 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해왔다. 남미 대륙 ASEZ는 이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인간관계의 황폐화와 인성 교육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 아동 조사 기관 Child Trends의 ‘중미와 남미 가정 생활의 차이에 관한 보고서’는 중남미 대륙 8개 국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의 가정 붕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경우 85%가 한부모 가정이다. 아동들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친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미국 법무부는 2014년 ‘가정 생활, 비행 그리고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범죄학자들은 가정과 같은 사회화 기관(Adult Institution)과의 유대 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통제력을 기르며, 이는 청년기 범죄 유발 가능성의 감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즉,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기에 올바른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돕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미 대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Suggestion 1: 아동 인성 함양 봉사 프로그램 구축]

첫째, 아동 인성 함양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와 그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물 보호 프로그램, 자연보호 활동과 같은 봉사를 진행한다.

아이오와 공중 보건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범죄 행위를 할 확률이 11% 적고, 체포될 확률이 31% 적으며, 유죄 선고를 받을 확률이 39% 적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 범죄 예방에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자아를 정립하기 시작하는 아동들이 인성 교육을 받은 후, 봉사활동을 통해 이를 직접 실천하게 된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Suggestion 2: 아동 정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둘째, 아동 정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감정 교류의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남미 대륙은 아동 인성 함양·정서 교류 프로그램의 구축 및 세계화를 제안한다.

AFRICA

1. Current Issue 청년 의식 부재

2. Suggestion 교육 커리큘럼 및 제도 도입을 통한 능동적 참여 활성화

아프리카 대륙에 소속된 55개국의 인구는 약 11억 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5세로, 아프리카는 상당히 젊은 대륙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땅이기도 하다. 전 세계 살인 범죄 발생률 2위가 남아프리카인 데다 강도 등의 강력 범죄는 물론이고, 코끼리 엄니(상아), 코뿔소 뿔 채집 등 국제 보호종으로 지정된 희귀 야생동물 밀렵과 더불어 끝나지 않는 내전으로 인한 블러드 다이아몬드 사태, 전쟁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종차별까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이처럼 다양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그런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어떤 연령층이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아는가? 안타깝게도 청년들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은 준법정신이 부족하다.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범죄와 부패에 질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 법을 지키게 되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아프리카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대륙의 미래인 청년들이 정작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프리카 대륙은 교육을 통해 도덕적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청년들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활동이 바로 거리정화운동이다. 단지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작고 미약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청년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행동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다.

아프리카 ASEZ 지부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도시, 시골의 우범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리정화 운동을 펼쳤다. 처음에 주민들은 우리 활동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지지치 않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뒤에는, ‘이러한 청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하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ASEZ가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며 ASEZ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렇기에 아프리카 대륙은 이러한 인식 개선 및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ASEZ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Suggestion 1: ASEZ 범죄 예방 리포트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

첫째, '전 세계 ASEZ 범죄 예방 리포트(Global ASEZ Reduce Crime Together Report)'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환경에 놓인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윤리 교구가 필요하다. 기존 ASEZ의 범죄 예방 리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환경 포럼 및 세미나에 사용됐고 그 교육적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포럼과 세미나를 통한 교육은 일시적인 교육이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ASEZ 범죄 예방 리포트를 정규 교육 커리큘럼으로 발전시켜 아프리카의 각 학교에 정규 수업 과정으로 등록할 것을 제안한다.

포럼과 세미나를 통한 일시적인 교육을 넘어,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윤리와 도덕,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교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Suggestion 2: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한 청년의 능동적 참여 활성화]

둘째, 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청년의 능동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청년들 스스로가 범죄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게 된다면 책임감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회에서 실현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대학 수업 모델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서 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모여 토론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다. 그런 대학의 '수업'이라는 체계와 경제적 지원 아래 아이디어를 고안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 예방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도움으로 정부에 직접 학생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볼 수도 있다.

EUROPE

1. Current Issue 강력범죄의 비약적 증가

2. Suggestion 처음으로 돌아가다! '천부인권'에 대한 환기

현재 유럽 대륙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 번째는 강력범죄의 비약적 증가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총 560만 건의 강력범죄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7년 12개월 동안 벌어진 520만 건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범죄율은 지난 4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된 사례 중에서도 칼과 같은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 인구의 범죄율이 지난해 초부터 9개월간 크게 높아졌다. 전체 범죄 가운데서 청년 범죄율은 약 10%나 증가했으며, 이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두 지역에서는 '무기를 소지한 젊은 범죄자'들이 비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럽 사회의 인권 의식 문제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의식의 결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유럽은 인권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전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발의된 곳이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8년, 대학생들이 주도한 또 한 번의 혁명으로 인권 의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이런 유럽과 인권 의식의 결여는 쉽게 관련짓기 힘든 내용이라 생각된다. 유럽 사회의 복지 수준이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점도 세계가 유럽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종, 종교, 성별, 국가로 인한 차별의식, 범죄는 전 유럽 세계에 뿌리 깊게 퍼져 있다. 이것이 유럽이 겪고 있는 두 번째 문제다. 처음 예시로 들었던, 최근 영국에서 급증한 흉기 난동 사건 역시 인간에 대한 증오가 원인이 된 증오범죄의 일례다. 유럽인들의 인권 의식이 진정으로 확립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범죄율도 낮게 보고되어야 한다. 인권이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리로 문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 존중과 배려는 개인주의, 증오심과 양립할 수 없다.

프랑스 법률가인 카렐 바사크에 의하면 인권의 개념은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소극적 권리로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다. 2세대 인권은 평등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인 사회권을 의미한다. 3세대 인권은 연대권으로, 서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권리다. 이는 인간 사이의 박애를 의미한다. 인권이 고도로 보장된 사회에서는 단결과 연대가 일상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은 단결은커녕, 개인이 가진 천부인권조차 부정하는 강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인권 자체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인권이란 무엇이며, 왜 인권의 보장이 중요한지, 인권 의식을 갖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인권 의식 증진 캠페인을 제안한다.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ASEZ는 지난 UN 세계 인권의 날에 자국에서 인권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인권 알리기 프로젝트는 2018년 전 세계 ASEZ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작년 ASEZ는 유엔 인권의 날을 맞아, 총 14개국 136개 대학에서 부스를 열고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앞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낸 경험을 발판 삼아, 유럽 대륙에 소속된 ASEZ 회원들이 일시에 인권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유럽인들의 인권 의식 제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¹현재(2020년) 미국 예일대 교수.

하버드의 새뮤얼 모인¹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이란 무엇인가』(2011)에서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현재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 말대로,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권의 조항을 문서화하고 인권 의식을 확산시킨 곳이다. 그러나 인권이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다. 테러, 인종차별 등 유럽 내에서 반인륜적인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유럽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ASEZ 유럽 지부는 이번 회의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개개인 모두가 체인지메이커로 변모하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실천이 없는 제안은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 유럽의 범죄 통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OCEANIA

1. Current Issue

차별 범죄

2. Suggestion

‘우리’의 인권-다르니까 사람이다

뉴질랜드는 원래 범죄가 현격히 적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3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 끔찍한 총격 사건으로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 이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이 모색되기 바란다.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첫째로 그 장소를 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둘째로 그곳을 잠재적인 재범 장소로 인식한다. 따라서 한 번 우범지대로 인식된 장소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 마을에서 방치된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마을의 모든 공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 호주 ASEZ 회원들은 특별히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그중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 보고자 한다. 버크 거리와 첼시 비치는 모두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다. 버크 거리는 멜버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5곳 중 1곳으로 2018년 12월 10일에는 한 명이 칼에 찔리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 테러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거리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범죄 예방을 외치는 거리 행진을 펼쳤다.

첼시 비치에서는 최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폭력 절도 범죄가 벌어졌다. 이 범죄를 계기로 많은 방문객들은 이 장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범죄 장소로 인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SEZ는 지난 2019년 1월 27일에 첼시 비치로 가서 200kg에 달하는, 쓰레기봉투로 총 50개 분량의 쓰레기를 치웠다.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해당 거리가 우범지대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범죄 예방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실천의 공로를 인정받아 ASEZ는 킹스턴시, 매닝엄시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잇따라 호주 국회의원의 지지도 얻게 되었다.

뉴질랜드 ASEZ 회원들은 먼저 범죄 예방에 동참하려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올해 5월 시청에서 시민 참여 포럼을 열었다. 더 나아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지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곧 캠퍼스 및 경찰, 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범죄 예방 포럼을 다시 열 계획이다. 의식 증진 활동뿐 아니라 4, 5월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캠퍼스 거리정화, 6월에는 낙서 지우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변 환경부터 변화시키고자 했다.

[Suggestion: ZERO CRIME ZONE 구축]

오세아니아는 세계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먼저는 모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 운동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범죄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나 자신만을 중시하고, 나의 인권만 인권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계인 모두가 나만의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 함께 가는 인권을 중요시한다면 세계 범죄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앞서 북미 ASEZ 지부에서 건의한 ZERO CRIME WEB ZONE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에서도 “ZERO CRIME ZONE”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ASEZ 오세아니아 지부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에 가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인다면 곧 전 세계 모든 곳이 범죄 없는 “ZERO CRIME ZONE”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Quantum Leap for Change:
Towards ZERO CRIME



최종 결의안

Changemakers' Resolution

교육 Education

Change Makers make the truth known.

‘진실을 알리는 사람’ Changemaker는 미래지향적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1. 아동,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및 정서 교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관계, 글로벌 윤리, 법이 정의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ASEZ 범죄 예방 리포트’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하여 각국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3.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상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실천 Action

Change Makers inspire people to act.

‘행동을 이끄는 사람’ Changemaker는 지역 중심적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1. 국가별 범죄 현황에 맞춰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별 범죄 발생 요인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한다.
3. 활동이 이루어지는 175개국 모든 도시마다 ZERO CRIME STREET, ZERO CRIME SCHOOL을 하나 이상씩 조성한다.

파트너십 Partnership

Change Makers lead people to cooperate.

‘협력을 도출하는 사람’ Changemaker는 범죄 예방 활동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대 활동을 진행한다.

1. 사회 전반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 기관, 시민 그룹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 방법과 대상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한다.
2. 대학생과 이해당사자 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분야 및 지역별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3. ‘ASEZ 자문 위원’ 제도를 통해 활동을 전문화하고, 전 세계 리더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Changemaker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부록

PARTICIPANTS

No	국가	대학명
1	가나	가나기술대학교
2	나미비아	나미비아과학기술대학교
3	나미비아	나미비아대학교
4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트바테르스란트대학교
5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트럴기술대학교
6	남아프리카공화국	더웨스턴케이프대학교
7	남아프리카공화국	츠와네기술대학교
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
9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대학교
10	네덜란드	헤이그응용과학대학교
11	네팔	GEMS학교
12	네팔	SAMB대학교
13	네팔	다막멀티플대학교
14	네팔	라트나라자락시미대학교
15	네팔	망갈로다야멀티플대학교
16	네팔	비렌드라멀티플대학교
17	네팔	액티브아카데미대학교
18	네팔	카스피언밸리대학교
19	네팔	코시멀티플캠퍼스

No	국가	대학명
20	네팔	탁사실라대학교
21	네팔	트리부반대학교
22	네팔	파드마칸야대학교
23	네팔	푸르반찰대학교
24	뉴질랜드	웰링턴빅토리아대학교
25	뉴질랜드	오타고국립기술대학교
26	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교(타우랑가 캠퍼스)
27	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교(해밀턴 캠퍼스)
28	뉴질랜드	유니텍공과대학교
29	대만	국립청공대학교
30	대만	국립충싱대학교
31	대만	타이완국립대학교
32	대만	국립타이중과학기술대학교
33	대만	봉갑대학교
34	대만	중조과학기술대학교
35	대만	국립핑통과학공과대학교
36	대한민국	가야대학교
37	대한민국	가천대학교
38	대한민국	가톨릭관동대학교
39	대한민국	강남대학교
40	대한민국	강동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41	대한민국	강릉영동대학교
42	대한민국	강릉원주대학교
43	대한민국	강원대학교
44	대한민국	강원도립대학교
45	대한민국	거제대학교
46	대한민국	건국대학교
47	대한민국	건양대학교(논산 캠퍼스)
48	대한민국	건양대학교(대전 캠퍼스)
49	대한민국	경기과학기술대학교
50	대한민국	경기대학교
51	대한민국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2	대한민국	경남대학교
53	대한민국	경남도립거창대학교
54	대한민국	경남정보대학교
55	대한민국	경동대학교
56	대한민국	경북대학교(남양주 캠퍼스)
57	대한민국	경북대학교(포천 캠퍼스)
58	대한민국	경북대학교
59	대한민국	경북보건대학교
60	대한민국	경북전문대학교
61	대한민국	경상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62	대한민국	경성대학교
63	대한민국	경운대학교
64	대한민국	경인교육대학교
65	대한민국	경인여자대학교
66	대한민국	경희대학교(국제 캠퍼스)
67	대한민국	경희대학교(서울 캠퍼스)
68	대한민국	계명대학교
69	대한민국	계명문화대학교
70	대한민국	고려대학교(서울 캠퍼스)
71	대한민국	고려대학교(세종 캠퍼스)
72	대한민국	공주대학교(공주 캠퍼스)
73	대한민국	공주대학교(천안 캠퍼스)
74	대한민국	광운대학교
75	대한민국	광주대학교
76	대한민국	광주보건대학교
77	대한민국	광주여자대학교
78	대한민국	구미대학교
79	대한민국	국민대학교
80	대한민국	군산대학교
81	대한민국	극동대학교
82	대한민국	금오공과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83	대한민국	김천대학교
84	대한민국	김포대학교
85	대한민국	김해대학교
86	대한민국	남부대학교
87	대한민국	남서울대학교
88	대한민국	단국대학교(죽전 캠퍼스)
89	대한민국	단국대학교(천안 캠퍼스)
90	대한민국	대경대학교
91	대한민국	대구가톨릭대학교
92	대한민국	대구공업대학교
93	대한민국	대구과학대학교
94	대한민국	대구대학교
95	대한민국	대구보건대학교
96	대한민국	대구한의대학교
97	대한민국	대덕대학교
98	대한민국	대림대학교
99	대한민국	대전대학교
100	대한민국	대전보건대학교
101	대한민국	대진대학교
102	대한민국	덕성여자대학교
103	대한민국	동강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104	대한민국	동국대학교(경주 캠퍼스)
105	대한민국	동국대학교(서울 캠퍼스)
106	대한민국	동남보건대학교
107	대한민국	동덕여자대학교
108	대한민국	동명대학교
109	대한민국	동서대학교
110	대한민국	동서울대학교
111	대한민국	동신대학교
112	대한민국	동아대학교
113	대한민국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14	대한민국	동양대학교
115	대한민국	동양미래대학교
116	대한민국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7	대한민국	동원대학교
118	대한민국	동의과학대학교
119	대한민국	동의대학교
120	대한민국	두원공과대학교
121	대한민국	마산대학교
122	대한민국	명지대학교
123	대한민국	명지전문대학
124	대한민국	목원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125	대한민국	목포과학대학교
126	대한민국	목포대학교
127	대한민국	배재대학교
128	대한민국	배화여자대학교
129	대한민국	부경대학교
130	대한민국	부산경상대학교
131	대한민국	부산대학교
131	대한민국	부산여자대학교
133	대한민국	부산외국어대학교
134	대한민국	부천대학교(본 캠퍼스)
135	대한민국	부천대학교(제2캠퍼스)
136	대한민국	삼육대학교
137	대한민국	상명대학교(서울 캠퍼스)
138	대한민국	상명대학교(천안 캠퍼스)
139	대한민국	상지대학교
140	대한민국	상지영서대학교
141	대한민국	서경대학교
142	대한민국	서영대학교
143	대한민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4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145	대한민국	서울시립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146	대한민국	서원대학교
147	대한민국	서일대학교
148	대한민국	서정대학교
149	대한민국	신문대학교
150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인문사회과학 캠퍼스)
151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 캠퍼스)
152	대한민국	성신여자대학교(돈암수정 캠퍼스)
153	대한민국	성신여자대학교(미아운정그린 캠퍼스)
154	대한민국	세명대학교
155	대한민국	세종대학교
156	대한민국	송원대학교
157	대한민국	수성대학교
158	대한민국	수원과학대학교
159	대한민국	수원대학교
160	대한민국	수원여자대학교(인제 캠퍼스)
161	대한민국	수원여자대학교(해란 캠퍼스)
162	대한민국	숙명여자대학교
163	대한민국	순천대학교
164	대한민국	순천제일대학교
165	대한민국	순천향대학교
166	대한민국	숭실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167	대한민국	승의여자대학교
168	대한민국	신구대학교
169	대한민국	신라대학교
170	대한민국	신성대학교
171	대한민국	신안산대학교
172	대한민국	신한대학교
173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174	대한민국	안동과학대학교
175	대한민국	안동대학교
176	대한민국	안산대학교
177	대한민국	안양대학교
178	대한민국	연성대학교
179	대한민국	연세대학교(미래 캠퍼스)
180	대한민국	연세대학교(본 캠퍼스)
181	대한민국	영남대학교
182	대한민국	영남이공대학교
183	대한민국	영진전문대학교
184	대한민국	오산대학교
185	대한민국	용인대학교
186	대한민국	용인송담대학교
187	대한민국	우석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188	대한민국	우송대학교
189	대한민국	우송정보대학
190	대한민국	울산과학대학교
191	대한민국	울산대학교
192	대한민국	원광대학교
193	대한민국	원광보건대학교
194	대한민국	유한대학교
195	대한민국	을지대학교
196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197	대한민국	인덕대학교
198	대한민국	인제대학교
199	대한민국	인천대학교
200	대한민국	인천재능대학교
201	대한민국	인하공업전문대학
202	대한민국	인하대학교
203	대한민국	장안대학교
204	대한민국	전남과학대학교
205	대한민국	전남대학교(광주 캠퍼스)
206	대한민국	전남대학교(여수 캠퍼스)
207	대한민국	전북대학교
208	대한민국	전주기전대학

No	국가	대학명
209	대한민국	전주대학교
210	대한민국	전주비전대학교
211	대한민국	정화예술대학교
212	대한민국	제주관광대학교
213	대한민국	제주대학교
214	대한민국	제주한라대학교
215	대한민국	조선간호대학교
216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217	대한민국	조선이공대학교
218	대한민국	조지메이슨대학교(한국 캠퍼스)
219	대한민국	중부대학교
220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221	대한민국	진주보건대학교
222	대한민국	차의과학대학교
223	대한민국	창신대학교
224	대한민국	창원대학교
225	대한민국	청암대학교
226	대한민국	청운대학교(인천 캠퍼스)
227	대한민국	청운대학교(홍성 캠퍼스)
228	대한민국	청주대학교
229	대한민국	충남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230	대한민국	충남도립대학교
231	대한민국	충북대학교
232	대한민국	충청대학교
233	대한민국	포항대학교
234	대한민국	한경대학교
235	대한민국	한국관광대학교
236	대한민국	한국교원대학교
237	대한민국	한국교통대학교
238	대한민국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9	대한민국	한국영상대학교
240	대한민국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캠퍼스)
241	대한민국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캠퍼스)
242	대한민국	한국폴리텍대학(광주 캠퍼스)
243	대한민국	한국폴리텍대학(구미 캠퍼스)
244	대한민국	한국폴리텍대학(성남 캠퍼스)
245	대한민국	한국항공대학교
246	대한민국	한국해양대학교
247	대한민국	한남대학교
248	대한민국	한라대학교
249	대한민국	한림대학교
250	대한민국	한림성심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251	대한민국	한밭대학교
252	대한민국	한서대학교
253	대한민국	한성대학교
254	대한민국	한신대학교
255	대한민국	한양대학교
256	대한민국	한양여자대학교
257	대한민국	협성대학교
258	대한민국	혜전대학교
259	대한민국	호남대학교
260	대한민국	호서대학교(아산 캠퍼스)
261	대한민국	호서대학교(천안 캠퍼스)
262	대한민국	홍익대학교(서울 캠퍼스)
263	대한민국	홍익대학교(세종 캠퍼스)
264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265	러시아	블라고베셴스크국립사범종합대학교
266	러시아	우랄주립광산대학교
267	러시아	첼랴빈스크주립대학교
268	말레이시아	IACT대학교
269	말레이시아	더원아카데미
270	말레이시아	브릭필즈아시아대학교
271	말레이시아	사바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272	말레이시아	세기대학교
273	말레이시아	툰쿠압둘라만대학교
274	말레이시아	폼식스대학교
275	멕시코	UDLAP대학교
276	멕시코	국립과학기술대학교
277	멕시코	네사우알코요틀기술대학교
278	멕시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279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학교
280	멕시코	멕시코베네메리타자치대학교
281	모잠비크	에두아르두몬들라느대학교
282	모잠비크	폴리테크니카대학교
283	몽골	몽골국립의과대학교
284	몽골	아징교육대학교
285	몽골	몽골인문대학교
286	미국	CNM커뮤니티대학교
287	미국	그로스몬트대학교
288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교
289	미국	뉴욕시립대리먼대학교
290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올버니 캠퍼스)
291	미국	뉴저지라마포대학교
292	미국	뉴저지시립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293	미국	덴버메트로폴리탄주립대학교
294	미국	덴버커뮤니티대학교
295	미국	리트거스대학교(뉴어크 캠퍼스)
296	미국	레드록스커뮤니티대학교
297	미국	로스앤젤레스밸리대학교
298	미국	루이빌대학교
299	미국	마운트샌안토니오대학교
300	미국	매디슨에어리어테크니컬대학교
301	미국	멤피스대학교
302	미국	버겐커뮤니티대학교
303	미국	사우스웨스턴대학교
304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컬럼비아 캠퍼스)
305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교
306	미국	서던네바다대학교
307	미국	서던코네티컷주립대학교
308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309	미국	솔트레이크커뮤니티대학교
310	미국	시카고로올라대학교
311	미국	애그니스스콧대학교
312	미국	아나G.멘데스대학교
313	미국	어래퍼호커뮤니티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314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315	미국	아카데미오브아트대학교
316	미국	애틀로프밸리대학교
317	미국	윌리엄패터슨대학교
318	미국	이스턴코네티컷주립대학교
319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320	미국	졸리엣주니어대학교
321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캠퍼스)
322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323	미국	콜로라도대학교(덴버 캠퍼스)
324	미국	태런트카운티대학교
325	미국	텔사커뮤니티대학교
326	미국	텍사스A&M대학교
327	미국	텍사스대학교(알링턴 캠퍼스)
328	미국	텍사스대학교(엘패소 캠퍼스)
329	미국	패서디나시립대학교
330	미국	퍼세이익카운티커뮤니티대학교
331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332	미국	프레즈노시립대학교
333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교
334	미국	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335	미국	피닉스대학교(캘리포니아 캠퍼스)
336	미국	하버드대학교
337	미국	하워드대학교
338	미국	휴스턴대학교
339	미얀마	다곤대학교
340	미얀마	양곤대학교
341	보츠와나	보츠와나대학교
342	보츠와나	보토대학교
343	볼리비아	산안드레스하이어대학교
344	볼리비아	토마스프리아스자울대학교
345	볼리비아	프란스타마요사립대학교
346	브라질	ESBAM대학교
347	브라질	브라질리아대학교
348	브라질	우니노르치대학교
349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기술대학교
350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351	싱가포르	싱가포르사립경영대학교
352	아르헨티나	호세클레멘테파스국립대학교
353	아르헨티나	로마스데사모라국립대학교
35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355	아르헨티나	코르도바국립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356	앙골라	감리교대학교
357	에스토니아	탈린헬스케어대학교
358	에콰도르	과야킬대학교
359	에콰도르	에콰도르중앙대학교
360	영국	UCA예술대학교
361	우간다	UICT대학교
362	우크라이나	드라고마노프국립교육대학교
363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교
364	인도	ISDI대학교
365	인도	MCNUJC대학교
366	인도	MMK대학원
367	인도	S.P모어대학교
368	인도	고아대학교
369	인도	구루나낙칼사대학교
370	인도	NERIST대학교
371	인도	템프예술과학대학교
372	인도	मुंबई대학교
373	인도	मुंबई대학원
374	인도	바르카톨라대학교
375	인도	베르함푸르대학교
376	인도	세인트빈센트상업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377	인도	아루노다야대학교
378	인도	인디라간디국립개방대학교
379	인도	칼사대학교
380	인도네시아	STIE국제경영경제대학교
381	인도네시아	퀵키안기경영대학교
382	인도네시아	프리마대학교
383	일본	TES도쿄영어전문학교
384	일본	교토타치바나대학교
385	일본	도쿄음악대학교
386	일본	메지로대학교
387	일본	시바우라공업대학교
388	일본	오사카대학교(미노 캠퍼스)
389	일본	타마미술대학교
390	짐바브웨	짐바브웨대학교
391	칠레	듀오크대학교
392	칠레	메트로폴리탄기술대학교
393	칠레	칠레대학교
394	칠레	칠레산티아고대학교
395	칠레	페데리코산타마리아기술대학교
396	캄보디아	경영경제대학교
397	캄보디아	바탐방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398	캄보디아	파냐스트라대학교
399	캄보디아	프레아코소막폴리테크닉연구소
400	캄보디아	국립프렙농업대학교
401	캐나다	노던앨버타공과대학교
402	캐나다	서던앨버타공과대학교
403	캐나다	콩코르디아대학교
404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405	파나마	파나마공과대학교
406	파키스탄	F.G.마르갈라여자대학교
407	페루	국립농업대학교
408	페루	리마대학교
409	페루	산마르틴데포레스대학교
410	페루	산이그나시오로올라대학교
411	페루	페루라스아메리카스대학교
412	페루	리마남부과학대학교
413	페루	페루응용과학대학교
414	페루	페루로마교황청립리마가톨릭대학교
415	페루	호세파우스티노산체스카리온국립대학교
416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417	필리핀	ABE국제비즈니스전문대학교
418	필리핀	UPHSD대학교

No	국가	대학명
419	필리핀	라구나주립폴리테크닉대학교
420	필리핀	마닐라대학교
421	필리핀	마리아노마르코스주립대학교
422	필리핀	마카티대학교
423	필리핀	민다나오대학교
424	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교
425	필리핀	산페드로대학교
426	필리핀	타를라크주립대학교
427	필리핀	파식시티대학교
428	필리핀	패츠항공대학교
429	필리핀	핀마세인트주드대학교
430	필리핀	필리핀라이시엄대학교
431	필리핀	필리핀국립대학교
432	필리핀	필리핀대학교(딜리만 캠퍼스)
433	필리핀	필리핀대학교(마닐라 캠퍼스)
434	호주	모나시대학교
435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436	홍콩	홍콩이공대학교
437	홍콩	홍콩과학기술대학교
438	홍콩	홍콩대학교
439	홍콩	홍콩성시대학교































THE FUTURE STARTS HERE! WITH ASEZ!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발행인의 서면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의 발췌 및 무단 전재와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